

에게 문명과 크레타섬 발굴로 보는 역사학과 고고학의 관계 하(下)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에반스의 업적과 과오

술리만과 에반스가 아니었다면 에게 문명의 존재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에반스는 크레타 왕 미노스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발굴할 문명을 ‘미노스 문명’이라고 명명했고, 『크로노스의 미노스 왕궁』이라는 제목으로 4권의 발굴 보고서를 출간했다(1921-1936). 그는 도기 양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대 구분을 했으며 에반스의 방법론은 지금도 에게 문명 연구의 기본 틀로 쓰일 정도로 그가 고고학에 남긴 공적은 지대하다.

고고학자의 임무는 어디까지일까? 발굴과 복원은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작업이지만, 현장에서 둘은 넘나들고 섞인다. 유적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적을 보존하는 단계에서 복원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에반스의 작업에서도 발굴 후 복원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다. 그는 한정된 비용으로 복원을 진행하면서 원재료와 다른 재료, 예컨대 콘크리트 등을 사용했다. 크노소스 왕궁의 기둥이나 대들보의 재료는 목재였다. 불타 버린 기둥이나 대들보 자리의 탄화 퇴적물이 그 증거이다. 오늘날 크레타는 다른 그리스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목은 별로 없지만, 왕궁 건립 무렵에는 그렇지 않았다. 에반스는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엔타시스 양식 대신 위쪽이 굽고 아래쪽이 가늘어지는 기둥을 세웠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발굴단이 찾아낸 파이스토스 궁전은 복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설프게 복원하느니 그냥 두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에반스는 기둥이나 대들보 외에 벽화도 복원했다. 그러나 철저한 고증보다는 상상으로 그림을 그

려 넣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에반스가 ‘샤프란을 따는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복원한 그림은 훗날 그리스의 학자 플라톤에 의해 ‘원숭이 그림’으로 수정되어야 했다. 최근에 경복궁 복원 사업에서 시멘트가 사용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문화재 관리나 복원에까지 경제 논리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씁쓸하다.

미케네 문명과 발굴

술리만은 1873년 트로이에서 그가 ‘프리아모스 왕의 보물’이라 여긴 것을 발굴했으나 그것을 몰래 그리스로 빼돌려 감춰두었다. 이 사실을 안 터키 당국은 격분했다. 하지만 술리만은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터키 공무원에게 보물을 넘겨줬다면 그 진가를 모르는 그들이 금만 얻을 목적으로 유물들을 용광로에 넣을 게 뻔하니 불가피하게 자신이 관리했다는 것이다. 술리만의 진심이 어디에 있던 터키 정부는 술리만의 발굴을 금지하고 술리만을 그리스 법정에 고소했다. 1875년 4월에 술리만은 1만 프랑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술리만은 터키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트로이 출토 석기나 토기를 몇 점 기증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술리만의 발굴 재개를 바로 승인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승인 후에도 현지 총독의 방해로 트로이 발굴은 보류되었다.

트로이 발굴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술리만은 트로이 전쟁 시기에 그리스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성채인 미케네를 발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트로이 사건을 지켜본 그리스 정부가 쉽게 발굴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술리

만은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 그리스 정부를 설득했다. 발굴 품 모두를 그리스 정부에 넘기고, 그리스 관리의 감시하에 발굴하며, 발굴은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진행하고, 인부는 50~60명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스 정부가 이를 수용해 1876년 7월에 발굴이 시작되었다.

발굴 시작 전 미케네는 호메로스가 노래했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시절의 면모는 거의 없는 황량한 언덕에 불과했다. 언덕 위에 있는 유적이라고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거석 방어벽의 일부와 사자문으로 불리는 성문의 일부가 다였다. 발굴이 시작되자 솔리만은 처음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인부는 어느새 100명에 가까워졌고, 여러 곳을 동시에 발굴했다. 이로 인해 그리스 감독관과 솔리만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발굴지역은 날마다 감독관과 솔리만의 언쟁으로 시끄러웠다.

그들의 싸움은 엄청난 발견과 동시에 종식되었다. 성문 바로 안쪽, 성채 남쪽에서 이중 석판으로 둘러싸인 지름 약 26m의 원형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솔리만은 처음에 이를 아고라(agora : 시장이면서 주민의 집회장소, 훗날 그리스 폴리스에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는 광장)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추측과 달리 바닥 아래에는 크고 작은 5개의 수혈묘가 발견되었고, 무덤 안에는 성인남성 12명과 여성 3명, 유아 2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각자의 생김새대로 만든 것으로 짐작되는 황금가면이 씌워져 있었으며, 여자 시신 중 어떤 것에는 문양이 있는 수백작의 황금 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외에도 황금으로 만든 장신구, 술잔 등 출토품은 양과 질에서 압도적이었다. 황금제 출토품에 가려서 그렇지 청동제, 은제 항아리와 토기류, 상감장식 검 등 가치 있는 출토품이 많이 나왔다.

이 수혈묘의 발견으로 솔리만의 호메로스 신앙은 더욱 굳어졌다. 호메로스는 ‘황금이 풍부한’이라는 수식어로 미케네를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황금이 풍부한 유물이 많이 발견된 것이다. 솔리만은 처음에 황금 가면 중 하나를 아가멤논의 것으로 여기고 무덤의 주인 또한 아가멤논으로 단정했다. 하지만 이 무덤의 주인공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기원전 12세기보다 400년 전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솔리만은 적잖이 실망했다. 그래도 솔리만은 자신이 발견한 황금 술잔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필로



그림 1. 솔리만의 아가멤논의 마스크라고 생각한 미케네의 황금 마스크 / 출처 : 위키피디아

스의 ‘네스토르 왕의 술잔’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형태나 문양이 호메로스가 서술한 것과 매우 흡사해 주저 없이 ‘네스토르의 술잔’이라 명명하고 위안을 얻었다.

솔리만의 발굴 후 수혈묘 하나가 더 발견되었다. 성채 밖에서도 한 개의 원형 묘역이 발견되어 편의상 그것을 원

형 묘역 B라 지칭해 솔리만이 발굴한 원형 묘역 A와 구별했다. 무덤 말고도 왕궁, 깊은 물탱크, 창고, 성채 밖의 가옥들 등이 확인되어 미케네는 확실히 에게 문명 후기의 중심이었다고 할 만큼 번영했음이 밝혀졌다.

선문자 B의 해독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네스토르 왕은 그리스군을 지휘한 영웅 중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영웅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경륜에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젊음에서만 나오는 용맹을 떨칠 수 없음에 탄탄했다. 물론 네스토르 왕은 영웅답게 일반인은 들지도 못하는 황금 술잔을 가볍게 들 수 있었다. 이 네스토르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필로스였다. 고고학자들은 필로스를 발굴하기 위해 몇 군데를 후보로 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1939년 그리스 고고학자 쿠르니오테스와 미국의 고고학자 블레겐이 공동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해 1940년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남쪽의 나바리노만 북쪽의 에빠노 앵글리아노를 유력한 후보지로 하여 왕궁의 일부로 생각되는 돌벽과 벽화의 단편, 선문자 B가 새겨진 점토판 등을 발견했다. 그곳을 필로스로 확정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탓에 발굴은 중단되었고, 1952년에 발굴은 재개되었다. 그 사이에 쿠르니오테스가 사망하여 마리나토스가 뒤를 이었다. 발굴 결과 2개의 왕궁터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네스토르의 왕궁’으로, 다른 하나는 보다 작은 것으로 네스토르의 아버지 ‘넬레우스의 궁’으로 추정했다.

네스토르 왕궁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술잔과 항아리 등 도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출토품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편들까지 포함해서 무려 1천 장이 넘는 선문자 B 서판이었다. 필로스 왕국은 기원전 1200년 경에 불길에 휩싸여 멸망했다. 화염이 얼마나 거셌던지 도기 파편 중에는 유리처럼 반쯤 투명해진 것도 있을 정도였다. 점토판은 그것에 새겨진 기록이 불필요해지면 물을 부어 반죽해서 재활용하기도 할 정도로 무른 재질이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오래 보존되기는 힘들다. 맹렬한 불길 덕분에 도기처럼 굳어 3000년의 세월을 견뎌 현대인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아테네에 영국 고고학 연구소가 개설된 지 50주년인 1936년, 런던에서 기념 강연이 열렸다. 에반스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문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크레타에서 발견된 미노스 문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강연장에는 열네 살 먹은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내가 그 문자를 읽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소년의 이름은 영국의 마이클 벤트리스(1922~1956)였다. 벤트리스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미노스 문자 해독에 대한 결심은 잊지 않았다. 그는 고문자에 관해 꾸준히 독학했고 연구논문을 써서 학자들에게 보냈다.

미노스 문자를 연구한 학자가 적지는 않았으나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미국의 알리스 코버는 선문자 B를 읽고 어렵פות하게나마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했다. 그래도 코버의 연구로 선문자 B의 구조와 전반적인 표기법 등에 대한 윤곽은 잡혔다. 벤트리스는 이 문자가 초기 그리스어는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가정해 각각의 문자에 음가를 붙인 표를 만들어 서판들에 대한 독해를 시도했다. 예상은 적중했고 마침내 선문자 B는 해독되었다.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벤트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채드윅 교수와 공동 작업으로 선문자 B의 해독과 점토판 300여 장에 대한 번역, 단어집 등 이 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한 『미케네 시대 그리스인의 기록』이라는 책을 완성했지만 출간 직전 자동차 사고로 요절했다.

에게 문명의 3개 문자 중 그림문자는 기원전 1700년 무렵까지 사용되었고, 선문자 A는 기원전 1800~1500년 사이에, 선문자 B는 기원전 1500년에서 1200년 무렵까지 사용되었다고 추정한다. 선문자 B는 크노소스에서 출토되기는 했어도 필로스에서 다량으로 나왔고, 미케네, 테베, 티린스 등에서도 소량이나마 출토되고 있어서 미케네 시대에 쓰인 문자임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어의 초기 형태라는

점은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인에 의해 이룩된 것임을 증명한다. 선문자 B가 선문자 A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고, 실제로 비슷한 문자도 적지 않은데 선문자 A는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계통의 언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림문자나 선문자 A를 사용한 크레타 문명의 주인공들이 그리스인이 아님도 분명하지만, 어떤 계통의 사람들인지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크레타 문명의 붕괴와 여러 논란

필로스 발굴에도 참여한 그리스 고고학자 마리나토스(1901~1974)는 1932년 크레타섬의 중심도시 중 하나인 암니소스를 발굴했다. 지금은 조그만 해수욕장에 지나지 않지만, 크레타 문명 시대에 암니소스는 크노소스의 외항이었다. 고대에 크레타섬은 지금보다 물이 풍부해 암니소스 항구에서 강을 거슬러 크노소스 궁전까지 배가 다닐 수 있었다고 상상하는 학자도 있다. 마리나토스는 암니소스를 발굴할 때 작은 저택을 찾아냈다. 이 집의 바닥에는 경석이 많았는데, 크레타섬에는 화산이 없으니 경석은 크레타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테라섬(오늘날의 산토리니)에서 떠내려온 것이라고 마리나토스는 추측했다. 테라섬은 기원전 16세기 무렵 대규모 화산 분화를 했고 그 여파로 크

그림 2. 파이스토스 궁전 유적지에서 발견된 선문자 A가 새겨진 원반의 앞면과 뒷면, 일명 ‘파이스토스 원반’
/ 출처 : 위키피디아



레타에도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마리나토스는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분출된 화산재가 수년 동안 하늘을 덮으며 홍작이 계속되어 크레타 문명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원래 자연재해설은 에반스가 주창하며 그리스인의 침입 때문에 크레타가 멸망했다는 인재설에 밀렸으나 마리나토스가 다시 자연재해설을 들고나왔다. 마리나토스는 테라섬의 파멸적 붕괴는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아틀란티스 전설은 플라톤의 저술 두 편에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티마이오스』에 의하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밖에 있던 큰 섬으로 인근의 바다와 대륙을 지배하는 대국으로 번영했지만 기원전 9600년경 이상한 대지진과 대홍수로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나와 있다. 『크리티아스』에는 아틀란티스의 도시와 농촌의 모습, 생산물, 군사력 등에 대해 상세히 말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집필이 중단된 미완의 책으로 남아 있다. 어쨌든 플라톤의 저술에 분명히 있는 아틀란티스 때문에 마리나토스의 새로운 가설은 사람들을 흥분시켜 테라섬 발굴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당장 발굴은 불가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7년이 되어서야 마리나토스는 테라섬 서남쪽에 있는 아크로티리 발굴에 착수했다. 삽질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후기 미노스 시대 초기 단계에 속하는 도기나 석제 램프가 나왔다. 발굴단은 건물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을 발견했다. 사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때 시멘트의 재료를 얻기 위해 테라섬에서 화산재를 채취했는데, 그때 향아리 등이 나온 적이 있다. 정식 발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는 아크로티리 근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마리나토스의 발굴이 진척됨에 따라 용암 분출로 사라진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멋진 벽화로 장식된 가옥들, 창고, 향아리, 화로, 기타 집기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훌륭했던 것은 벽화였다. ‘봄의 프레스코’라는 벽화는 크노소스 벽화와 달리 화산재에 묻혀 있어 아무런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마리나토스는 불운하게도 1974년 발굴현장에서 실종사했다. 그는 사



그림 3. 테라섬(오늘날의 산토리니) 아크로티리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화 ‘봄의 프레스코’ / 출처 : 위키피디아

고현장에서 가까운 유적 한가운데에 묻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일시 중단되었던 발굴은 두마스 교수에 의해 재개되었는데, 시신과 귀금속 제품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화산 폭발 당시 대피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능 탄소 측정 결과, 테라섬의 화산 폭발은 기원전 1559년±44년이었다. 크레타 문명의 붕괴 시기가 기원전 1400년경이라고 볼 때 100년 정도의 간격이 생기므로 크레타 문명의 멸망과 테라섬 분화 사이의 연결은 쉽지 않게 된다. 자연재해에 의해 약화된 크레타에 본토 그리스인이 침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해도 1세기라는 간격은 설명이 쉽지만은 않다.

마리나토스가 아크로티리 유적이 아틀란티스 문명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호사가들은 돌을 결부시켰고 속설은 끝없이 재생산되었다. 마리나토스는 아크로티리에서 나온 ‘어부’, ‘권투하는 두 소년’ 같은 그림들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머리털을 군데군데 남기고 삭발하던 풍습을 가진 아프리카 북안의 리비아와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기원전 6세기 초, 테라섬 사람들은 리비아에 식민도시 퀴레네를 건설했다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전한다.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2개를 연결시켜 주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테라섬은에게 문명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발굴이 더 진척된다면에게 문명사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고대사에서 실증 가능한 유물이나 유적의 발견은 그 어떤 상상과 추론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